

김주찬, 기록도 함께 달린다



최소경기 100안타, 출루·장타율 개인 최고
도루 6개 추가하면 통산 7번째 350 도루

KIA 김주찬의 기록은 계속된다. 올 시즌 김주찬은 그야말로 거침없다. 연례 행사처럼 우측 발바닥 통증과 손가락 부상 등으로 두 차례 그라운드를 떠나기도 했지만 부상에서 벗어난 뒤 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NC와의 경기에서 프로야구 최소 경기 100안타 기록을 64경기에서 62경기로 단축한 김주찬은 4일 현재 0.385의 타율로 한화 김태균(0.386)에 이어 타율 2위에 올라 있다.

안타는 107개로 공동 10위에 머물러 있지만 경기당 안타수로 계산하면 김주찬이 1.65개로 가장 많은 안타를 뽑아냈다. 최다안타 1위인 넥센 서건창이 90경기에서 135안타를 만들면서 경기당 평균 1.5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타율은 물론 장타율(0.568)·출루율(0.434)에서도 역대 개인 최고 기록을 써가고 있다. KIA의 잔여경기는 37경기. 자신의 안타(135개)·타점(42개) 최고 기록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김주찬은 107개의 안타로 36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의미 있는 기록도 이어지고 있다. 김주찬은 4월2일 NC와의 홈 개막전에서 KIA의 첫 타점과 첫 도루를 장식하며 팀의

챔피언스필드 1호 기록을 썼다. 5월4일 넥센전에서 프로 데뷔 이후 두 번째 끝내기 안타를 터트리며 포효했던 김주찬은 5월10일 한화전에서 프로야구 통산 60번째로 1100안타 고지를 밟았다. 한 달 뒤인 6월10일 이번에도 한화를 상대로 200번째 2루타를 만들어냈다. 프로야구 통산 50번째 기록이다.

뜨거워진 타력에 비하면 주력이 김주찬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6월17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2루 베이스를 훔치면서 통산 12번째 9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를 찍기도 했다.

남은 시즌에서 김주찬은 스피드로 또 다른 기록을 쓰게 된다.

앞으로 5개의 도루를 추가하면 한화 정근우에 이어 프로야구 두 번째로 9년 연속 20도루라는 기록을 완성하게 된다. 6개의 도루가 더해지면 통산 7번째 350 도루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린다.

발바닥 부상에 시달리면서 도루 성공률이 62.5%로 떨어진 게 아쉽지만 지난 주말 비가 이어지면서 한숨을 골랐다.

폭 쉬어간 김주찬이 발로 쓰게 될 기록. 김주찬의 발이 '호랑이 군단'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점입가경’ 프로야구

이주부터 2연전 체제...판세 급변 순위 싸움 '변수'

프로야구의 순위싸움이 빠르게 전개된다. 5일부터 프로야구가 3연전에서 2연전 체제로 변경된다. KIA는 두산 원정을 시작으로 문학구장을 들린 뒤 주말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와 대결을 벌인다.

막내 NC의 가세로 9구단 체제가 된 지난 해부터 편성된 2연전 일정. 2연전은 프로야구 순위싸움의 중요한 변수다. 여름 짝꿍 더위에 잦은 이동, 여기에 매주 3개 팀과 대결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일 각 팀의 판세가 달라지게 된다.

이동의 연속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은 주요한 경기력이 된다. 또 3개팀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상대팀에 맞는 맞춤형 전략까지 승리를 위해 더 치밀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KIA에게는 나쁘지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삼성과의 주말 두 경기를 쉬어간 KIA는 올 시즌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두산과 SK를 연달아 만난다. 올 시즌 두산전 전적은 7승4패, SK에게도 7승5패로 앞서있다. 원정에 이은 원정이지만 이동거리도 잠실과 문학으로 최소화 됐다.

두산-SK를 상대로 분위기를 살린다면 주말 홈에서 만나는 롯데와의 경기에서 겨겨가는 4강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

두 차례의 4연패로 4강권에서는 멀어졌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KIA. 2연전 변수가 KIA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호~”

매길로이,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우승...세계 1위 탈환

‘차세대 골프황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매길로이는 4일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컨트리클럽 남코스(파70·7400야드)에서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4타를 줄였다.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친 매길로이는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13언더파 267타)를 상대로 역전극을 펼치며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 우승 이후 2주 만에 다시 특급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53만 달러(약 15억9000만원)다.

매길로이는 이번 우승으로 애덤 스콧(호주)을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다시 올랐다. 매길로이는 2012년 8월13일부터 2013년 3월

24일까지 29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후 1년 4개월여만에 최고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매길로이는 또 세계 6대 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최하는 WGC 대회에서 처음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려 메이저대회와 WGC 대회를 함께 제패한 13번째 선수가 됐다. 메이저대회와 WGC 대회를 연속 우승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와 매길로이 뿐이다.

스콧은 마지막 날 1타를 잃고 공동 8위(7언더파 273타)로 대회를 마쳐 11주 동안 지키던 세계랭킹 1위에서 내려왔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9번홀에서 티샷을 한 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 올 시즌 남은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냈다. 제미 동포 케빈 나(타이틀리스트)는 공동 23위(3언더파 277타), 노승열(나이키골프)은 공동 37위(이븐파 280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가르시아

“어휴~”

가르시아, 티샷에 갤러리 다이아 반지 맞춰 해프닝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하마터면 티샷 한 번 잘못 날렸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낼 뻔했다.

가르시아는 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컨트리클럽 남코스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4라운드 3번 홀에서 날린 티샷이 왼쪽으로 밀렸다.

갤러리들이 모인 곳으로 날아간 공은 공교롭게도 한 여성의 반지를 정확히 맞췄다. 그 바람에 여성의 반지에 박혀 있던 다이아몬드 가 빠져 러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중계를 하던 미국 CBS 방송의 닉 팔도는 “6개릿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고 코스 리포터를 맡은 데이비드 페허티도 “아마 가장 비싼 값의 티샷이 되는 것 아니냐”며 가르시아가 물어내야 할 돈을 걱정하기도 했다. 6개릿이 맞다면 가격이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가르시아는 우선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며 사인공을 선물했고 일단 두 번째 샷을 치고 나서 만일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갔다. 다행히 약 20분 정도 후에 그 여성은 다이아몬드를 찾아 한숨을 돌렸고 가르시아 역시 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연합뉴스